

시편 69편 묵상 (2) -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에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를 얻습니다

개역	사역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4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5 큰물이 나를 엄몰(淹沒)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 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5 큰 물결이 저를 덮치지 말고 깊은 수렁이 저를 삼키지 말고 음부가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6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오니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무한한 긍휼로 저를 향하여 주십시오.
18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贖良) 하소서.	17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가 곤경 가운데 있으니,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19 주께서 나의 궤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18 제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저의 원수 때문에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20 궤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安慰)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19 저의 모욕과 저의 조롱과 저의 수치를 주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저의 대적들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21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20 수치로 저의 마음은 찢어지고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동정을 바랐으나 하나도 없고, 위로할 자들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22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닳이 되게 하소서.	21 그들은 저의 먹을 것에 쓸개를 넣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합니다.
23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2 그들 앞에 차려진 식탁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잔칫상은 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4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23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여 주십시오.
25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24 주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십시오.
26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25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27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6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치신 자들을 핍박하고 주님께서 넘어뜨리신 자들의 상처를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28 저희를 생명책(生命冊)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27 그들의 죄에 그 죄를 더하시고 주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28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29 그러나 저는 가련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저를 높이 세워 주십시오.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0 나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 노래로 주님을 높일 것이다.
32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 어다.	31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실 것이다.
33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급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32 온유한 이들이 보고 기뻐할 것이다.
34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	

<p>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36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에 거하리로다.</p>	<p>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蘇生)케 하여라. 33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들으시고 포로 된 그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34 하늘과 땅은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생물이, 찬양하여라. 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고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36 그분의 종들의 후손이 그곳을 상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p>
---	--

큰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범람하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린 다음에는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잘 다스리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장맛비가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69편은 큰물에 휩쓸려가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물이 목까지 차서 숨을 쉴 수 없고 큰물에 휩쓸려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큰물’은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의 조롱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경건한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7-9절). 성문에 앉은 높은 사람도 비웃고 주정뱅이와 같은 비류(匪類)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한 조롱의 말이 시인의 영혼에 박혀서 거의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그는 그 구덩이가 입을 닫아 스올에 갇히는 것, 곧 죽는 것과 같은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구원을 간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구하였습니다(22-2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찬송하였습니다(30-36절). 1-29절에서는 수치와 죄책과 보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 30-36절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심도 없고 구원을 얻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와 이름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시인이 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소망한 영광인 것입니다.

1. 원수의 조롱에서 또 구원해 주십시오 (14-21절)

1) 물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14-18절)

- ¹⁴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¹⁵ 큰 물결이 저를 덮치지 말고
깊은 수렁이 저를 삼키지 말고
음부가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14-15절에서는 2절에 나왔던 수렁과 깊은 물, 큰 물결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설명되었던 그 단어들이 6-13절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진 시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제 14-15절에서 ‘큰물’과 ‘원수’에 대한 내용이 종합되고 있습니다. ‘수렁과 깊은 물과 큰 물결과 깊은 수렁’이 반복되는 가운데 14절에 ‘저를 미워하

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령과 깊은 물' 등의 이 표현들이 바로 까닭이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새로운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음부가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음부가 그 입을 닫는다' 하면 꿀꺽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올에 간다' 혹은 '무덤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는 데에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습니다.

- ¹⁶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오니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무한한 긍휼로
저를 향하여 주십시오.
- ¹⁷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가 곤경 가운데 있으니,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 ¹⁸ 제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저의 원수 때문에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인자하심'이 언약의 사랑이라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태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주님께서 나를 품어 주시고 나에게로 돌이켜 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손님처럼 대하고 이방 사람처럼 대하는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보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7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얼굴을 돌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종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위기의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구속'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속(救贖)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가족이나 친척이 다시 사 왔는데, 그렇게 대신하여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은 시인은 이유도 없이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엘'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속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저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는 이방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받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2) 원수의 조롱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19-21절)

- ¹⁹ 저의 모욕과 저의 조롱과 저의 수치를 주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저의 대적들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 ²⁰ 수치로 저의 마음은 찢어지고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동정을 바랐으나 하나도 없고,
위로할 자들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 ²¹ 그들은 저의 먹을 것에 쓸개를 넣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러한 때에 시

인은 ‘저의 모욕과 저의 조롱과 저의 수치를 주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원수도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원수들이 숨통을 끊을 듯이 시인에게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조롱을 받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습니다.

‘수치로 저의 마음은 찢어지고,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동정을 바랐으나 하나도 없고, 위로할 자들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가 모욕하면서 그의 마음은 다 찢어졌고 그는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이 조각난 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으나 없습니다. 오히려 있다면 쓸개와 초를 먹으라고 주는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저의 먹을 것에 쓸개를 넣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합니다.’ 쓸개만 덜렁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쓸개를 준다는 말은 쓸개를 섞은 음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데 거기에 살짝 쓸개를 섞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한입 크게 베어 물면 그 안에 쓸개가 섞여 있어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다시 뱉어내면 원수들은 재미있다고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먹을 것에 쓸개를 넣고 마실 것에 식초를 준다는 것은 그러한 장면을 놓고서 하는 말입니다. 식초의 경우도 마시면 갈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목마른 시인에게 이런 것을 마시라고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은 매우 큰 조롱입니다.

시인의 원수는 사람의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서 시인을 조롱하였습니다. 거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인데, 사람들은 시인을 사람 이하로 대우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벌레처럼 발밑에 두고 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이하의 조롱을 받지만, 시인은 인간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동정할 사람을 바랐으나 쓸개와 초로 조롱하는 사람뿐인 현실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로로 삼아 그분께 피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보복 (22-29절)

1)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 (22-25절)

- ²² 그들 앞에 차려진 식탁은 울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잔칫상은 덧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 ²³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여 주십시오.
- ²⁴ 주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십시오.
- ²⁵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진 시인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데, 그 큰 물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시인이 하나님께 보복을 호소하는 소리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직접 대응하면 싸움이 되겠지만, 시인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은 작은 소리이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자신에게 쓸개를 주면서 조롱한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함이 덧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시기를 공의의 하나

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쓸개와 초를 주고, 자기들끼리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피가 성공하였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였다고 자축(自祝)하는 그 자리가 그들의 닢이 되게 하셔서, 마치 짐승이 닢에 걸렸을 때처럼 그들도 그 자축의 자리에서 곧바로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벨사살 왕의 경우를 생각나게 합니다(단 5장).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조롱하다가 그날 밤에 죽었고 바벨론도 그날 밤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식탁은 그의 닢이었고 그와 그의 나라는 그 닢에 걸려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목이 쉬고 눈이 침침하여진 시인은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큰물로 덮치듯 시인을 조롱하여 눈앞이 침침하여지게 만든 그들의 눈이 침침하여지고, 디딜 곳 없이 큰물에 떠내려가게 만든 그들의 허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쓰러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십시오.’ 큰물처럼 시인을 공격하였던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폭우를 붓듯이 분노를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닢이 되며 그들의 눈이 침침하여질 때에, 그 모든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복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회개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시인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한 열심이 조롱받을 때에 시인은 반대로 그들의 거처가 황량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시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을 소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진 시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가 소망하는 여호와의 집은 세우시지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을이나 집은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아뢰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 (26-29절)

- ²⁶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치신 자들을 핍박하고
주님께서 넘어뜨리신 자들의 상처를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 ²⁷ 그들의 죄에 그 죄를 더하시고
주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 ²⁸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 ²⁹ 그러나 저는 가련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저를 높이 세워 주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을 구하는 이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치신 자들을 핍박하고 주님께서 넘어뜨리신 자들의 상처를 말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넘어뜨리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그러한 시인을 조롱하였습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도 조롱하고 주정뱅이도 조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넘어뜨리신 자들의 상처를 말하고 다닌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겠습니까? 위로의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시인의 슬픔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들은 137편에서 노래하

는 것처럼 ‘시온의 노래나 한 자락 불러 보라’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경건한 시인은 그들의 가족과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계하셨으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위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게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집안과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시인은 간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재미있는 애깃거리로 삼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태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잘못임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그들의 죄에 그 죄를 더하시고 주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에 그 죄를 더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들의 죄에 죄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씩 검토하여서 그것이 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죄라는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 대하여서 계속 죄를 짓도록 버려두는 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을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면인데(참조 시 125:5), 그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결국 주님의 의에, 곧 주님의 의로운 영역에 들어올 수 없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영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을 시인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생명책”이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로도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의 명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명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명부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이름을 지우면 그는 이 세상에서도 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이름을 지우면 번성하던 사람이라도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들이 죽게 되기를 구하고 그들의 나라가 황폐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방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2-28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전투적이고 거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좀 더 점잖은 표현에 익숙한 신자들로서는 이 시편을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점잖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가진 시인을 조롱하고 있으며, 시인이 완전히 굴복하거나 죽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조롱하고 가지고 놀면서 천천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상하고 점잖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은 두 나라가 싸우는 삶의 현실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세상의 공격이라는 것이 것처럼 거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말도 아주 사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인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69편에 나온 말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힘으로 상대를 대항할 수 없을 경우에 말로 끝까지 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주하는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원수를 향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아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공의의 원칙대로(갈 6:7), 악인이 그들의 심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시인의 마음은 매우 유순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가련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저를 높이 세워 주십시오.’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기도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겸손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숨김없이 아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기다립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겸손한 위치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30절부터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다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것처럼 힘든 것이었던 만큼 그의 찬송도 더 크고 확실한 것이 됩니다.

3. 구원에 대한 찬양 (30-36절)

1) 시인의 찬송: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

³⁰ 나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 노래로 주님을 높일 것이다.

³¹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실 것이다.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시인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후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장차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송하는 것이, ‘소를 바치는 것이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그분께 더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황소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소를 바치는 것은 매우 귀한 헌상(獻上)을 하는 것입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은 황소이고 힘을 쓰기에 가장 좋은 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사람의 구원은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황소를 속죄제의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바르게 드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속죄제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됩니다. 속죄제의 뜻을 이룬 찬송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성전을 위한 열심을 노래한 이 시는 포로기의 상황에서도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들으시고 포로 된 그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으로 시인의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개역한글에서는 ‘수금된 자’, 곧 감옥에 갇힌 자라고 번역하였는데, 구약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것을 옥에 갇힌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시

79:10-11).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간힌 자의 탄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거기에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69:7에서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모욕과 수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후손이 그곳을 상속한다’는 69:35-36의 말씀도 포로기의 상황에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황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스림 아래 있었지만 여호와와의 언약을 믿고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서 하늘의 성전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2) 온유한 자들의 찬송

³² 온유한 이들이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蘇生)케 하여라.
³³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들으시고
포로 된 그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한 사람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는 시인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원수들을 다 황폐케 하시고 이 시인을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 주시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찾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시인이 넘어지면 여호와를 바라는 다른 사람도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었는데 (6절), 시인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마음에 힘을 얻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본문에서는 시인의 승리를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는 사람을 네 가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온유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가난한 자’, ‘포로 된 그의 백성’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온유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게 됩니다. 포로라는 각박한 상황에서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온유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삽니다. 셋째는 ‘가난’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환경에 적응하여서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에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넷째는 ‘포로 된 그의 백성’입니다. 말을 매끄럽게 하려고 ‘백성’이라는 말을 넣어 번역하였지만, 직역하면 ‘그분의 포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들을 ‘바벨론 사람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사여탈권(生殺與奪權)을 쥐고 있는 자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을 때에 그들을 포로로 보낸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포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의 징계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대로 포로 된 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종으로 사용하여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주님을 광대하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3) 천지의 찬송과 그 근거

³⁴ 하늘과 땅은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생물이, 찬양하여라.

- ³⁵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고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 ³⁶ 그분의 종들의 후손이 그곳을 상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여호와와 광대하심을 찬송할 때에 천지 만물이 화답합니다. 시인이 앞장서고 다른 성도들이 따라서 부르는 찬송에 하늘과 땅도 가담하고 바다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도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러한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찬송이 성도의 찬송으로, 성도의 찬송이 만물의 찬송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데, 시의 마지막 두 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을, 시인은 이어서 네 가지 사실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고, 둘째로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며, 셋째로 그들이 그곳을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것’이고, 넷째로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곳을 소유로 삼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어 자손들로 거기에 계속 거하게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후에 제2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다시금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그분의 종들의 후손이 그곳을 상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복수형이 사용된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7절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제가 곤경 가운데 있으니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의 마지막에서도 약속의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사람을 ‘주님의 종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시 105:6, 42)이나 야곱(시 136:22), 모세(시 105:26), 다윗(시 78:70)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의 종들’로서 민족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상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약속의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영원히 감당할 것을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영원히 감당하는 일은 주님의 종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원수는 시인을 멸망시키고 끊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거처는 황폐케 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만 시인의 후손은 ‘주님의 종들’로서 땅을 차지합니다.

4.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

1) 예수님의 성취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취됨

시편 69편은 신약에 많이 인용된 시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사역하신 일,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신 일, 특히 신포도주를 가져오게 하셔서 69편을 이루신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목 마를 때에 저희가 식초를 주었나이다” 하는 구절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목 마르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시편 69편을 성취하신 사실도 생각하였습니다. 요한 복음 19:28에서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고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0-36절에서 노래하는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의 길을 즐거이 가셨습니다.

세상이 이유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조롱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연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요 15:25)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은 주님께 속한 자들도 미워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미움과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소망하게 됩니다.

시편 69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들에게도 심판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25절에서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가롯 유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던 마리아를 책망하며 돈관에서 돈을 훔쳐가던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참조. 요 12:5-6). 그가 자살하고 피밭이라고 불리는 곳에 묻혀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시편 69:25가 성취되었다고 인용하였습니다(행 1:19-20).

69:25가 인용된 또 다른 구절은 로마서 11:9-10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굶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사실을 말하면서 시편 69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이 시기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69편을 인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69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 우리 강한 자가 미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4장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르치면서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높이 되는가'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일등인가? 일등을 하더라도 이등과 얼마나 차이를 났는가?'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짚어준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살고, 나의 자녀도 거기에 살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 나라에 살 것입니다.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수치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라고 주님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조롱이 큰물처럼 덮치고 물이 목까지 찼을 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에 휩쓸려 가신 것

이 아니라 잔잔히 흐르는 새로운 물을 내시고, 그 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흥용하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서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품고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조롱하는 것은 영원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는 한집에 사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우리의 찬송에 가담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양에게 찬송을 드리면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하면서 화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벧후 3:13).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살았던 뜻이,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자체가 곧 성전이고, 그 성전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읽는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러한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의 조롱을 이겨 내고, 흥용하는 물결과 같은 세상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서 흥용하는 파도처럼 다른 사람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된 우리는 온유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 우주를 채우고 창조의 본의가 충만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가난한 심정으로 나그네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은교회. 2005년 4월 6일; 신학교 경건회. 2010년 11월 25일)